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17  
2016.0102

#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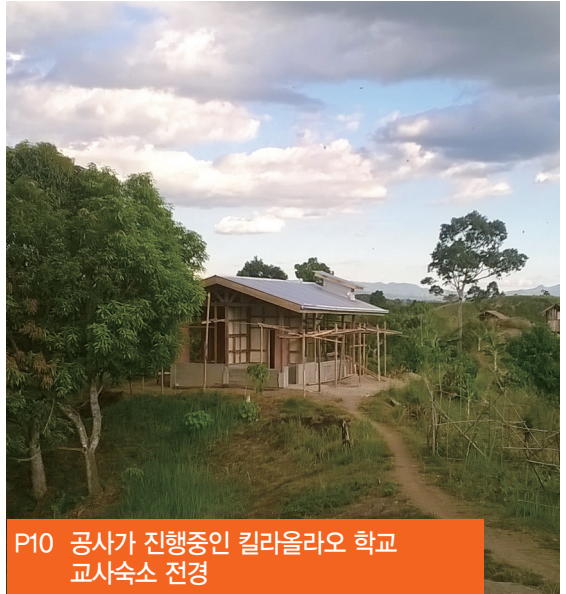


### 커버스토리

인도 동게스와리의 추운 겨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선물인 수자타아카데미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털모자를 선물 받은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10 공사가 진행중인 킬라올라오 학교 교사숙소 전경



P15 JTS와 길벗이 함께한  
2015년 연말 명동 거리모금



P21 거리모금과 함께 맞이하는  
2016년 새해 첫 해돋이

## Contents | 목차



### 해외소식

- 04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동게스와리 겨울 이야기 - 정유진
- 08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민다나오 다물록 군 방문기 - 오정심



### 국내소식

- 17 함께 나누는 사랑  
길벗과 함께한 2015년 연말 명동 거리모금
- 23 함께하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공부 - 신성숙  
나는 사랑을 전하는 JTS 봉사자입니다 - 김문정  
해운대 해맞이 행사장에서의 거리모금 - 정미숙  
미국 뉴저지 BCA 고등학생들, JTS 교내 정규 클럽 설립 - 백은주



### 활동터소식

- 28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중국
- 33 후원인의 소리
- 34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6. 2. 1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희선, 권지연, 임양호,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김명순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 JTS 후원회원 여러분! 희망의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은 IS의 파리 테러, 시리아 난민 사태 등 전세계적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아시아에도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4월에는 네팔에서 대지진이, 8월에는 미얀마에서 홍수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아시아의 빈곤과 아픔은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결하자.”는 이념 아래 JTS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식량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네팔에서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3개 학교의 조기복구 사업을 진행하여, 하루빨리 재해의 아픔에서 벗어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 특히 취약계층에 식량을 적으나마 지원할 수 있었고,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농토 유실을 막아 기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버드나무 묘목 16만 그루를 지원했습니다. 버드나무는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생명력이 강하여 어느 땅 어느 곳에 심어도 튼튼히 자라난다고 합니다. 비록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아 적극적인 구호사업을 펼칠 수는 없었으나, 버드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같이 통일의 기운도 융성하여 기아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내에서는 8월에 안산 다문화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조선족과 새터민 등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인 다문화인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JTS도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도JTS에서는 수자타 아카데미와 지바카 병원을 바탕으로 동게스와리 지역의 기아와 질병, 문맹 퇴치에 변함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체중아 지원 사업을 4년째 진행한 결과 동게스와리 15개 마을에서 저체중아 사망률 0%에 가까워졌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 JTS가 활동을 시작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활동가들과 함께 12년의 사업 현장을 모두 돌아보며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4월에는 전통 문화를 소중히 계승하고 있는 민다나오 딸란딕 부족의 지도자와 부족민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JTS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태풍 피해를 입었던 마라뿔 지역의 교실 조기 복구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라오스JTS는 지난 2월 콕농부아 마을 학교 건축을 종료하였습니다. 학교를 완공하고 교복과 그림책, 놀이시설 등을 지원하여 마을 아이들이 초등 교육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더불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이루어진 JTS의 모든 활동들은 오직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국내외 후원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마다 달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결 같이 거리모금을 진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지역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모금과 바자회 등을 통해 직접 마련한 성금을 전달해 주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과 연말에 거리모금을 진행하여 큰 도움을 주시는 길벗 여러분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굶주리고 고통 받는 세계 이웃을 생각하며, 봉사와 후원을 하면서도 언제나 “나눔으로써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밝은 얼굴들을 보며 희망의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물심양면으로 JTS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후원회원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6년 새해에도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굶주림과 질병, 문맹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丙申年 새해 아침  
JTS 이사장 법륜 합장



## 등게스와리 겨울 이야기

- 추운 겨울, 올해는 다른 겨울

등게스와리에도 겨울이 왔다. 과연 얼마나 추울지 잔뜩 걱정하고 왔는데 걱정만큼은 좁지는 않다. 매년 겨울 한국에서는 따뜻한 실내만 찾아다녔는데, 여긴 어디를 가도 춥다. 그래도 내게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정유진 활동가



“주민들이 난방기구를 사서 쓸 만큼 생활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껏 살아왔듯이 그냥 산다.”

드디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동게스와리에도 겨울이 왔다. 한국보다 날이 차진 않지만, 인도의 겨울도 춥긴 춥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눈은 구경도 못 하는 겨울이지만, 이곳 동게스와의 겨울은 특히 더 추운 것 같다. 인도JTS가 있는 수자타아카데미 역시 춥다.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쓰고 있지만, 난방기까지 쓰기엔 전기가 부족해 옷을 두텁게 입고 이불을 많이 덮고 자는 겨울을 보내고 있다.

동게스와리 마을에도 전기가 조금씩 들어오곤 있지만, 전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방을 밝히는 전구나 사용하는 수준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더 많은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난방기구를 사서 쓸 만큼 생활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껏 살아왔듯이 그냥 산다. 이제는 동게스와리도 많이 변해서 벽돌집도 많이 생겼지만, 흙벽에 벗단 지붕을 얹은 집들도 아직 많다.

낮에는 해가 나와서 좀 따뜻하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 방에 모두 모여서 벃단을 깔고 자거나(진짜 따뜻하다고 한다), 흙으로 만든 작은 그릇에 고히따(소동, 짬, 흙을 섞어 말린 것)를 태워 집안 공기를 덥히기도 한다. 그래도 옷을 두껍게 입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서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편이다. 해가 나와 있는 시간에 주로 활동을 하고, 해가 지고 나면 집 앞에 삼삼오오 모여서 불을 피거나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활 방식이 이렇다 보니, 여기서는 기본적인 옷이나 담요같이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JTS 마을개발팀에서는 매년 동게스와리 모든 가구에 큼지막한 담요를 한 장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1,500가구에 담요를 전달했다. 3 마을씩 닷새간 수자타아카데미로 모두 초대해서 진행했는데, 오랜만에 수자타아카데미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한번에 이렇게 모든 주민이 모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단순히 JTS에서 물품을 지급하고 사람들은 받아가는 구호형식이 아니라, 주민들 역시 무언가를 가져와 담요와 교환하는 형식이 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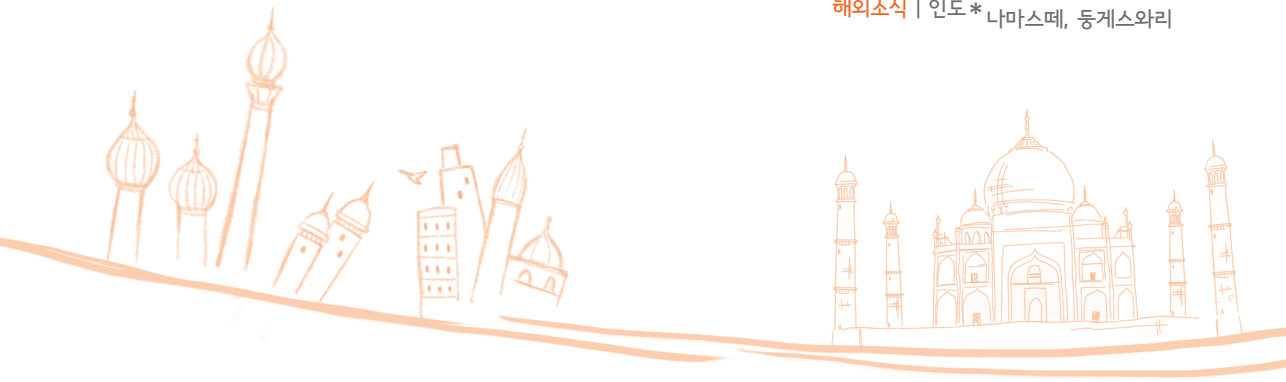
이번 담요지원 사업에서는 특별한 방식을 준비해봤다. 단순히 JTS에서 물품을 지급하고 사람들은 받아가는 구호형식이 아니라, 주민들 역시 무언가를 가져와 담요와 교환하는 형식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마을에 담요 지원을 알리면서 수자타아카데미로 올 때 쌀 한 줌과 1루피(한화로 약 18원) 동전을 함께 가져오라고 했다. 주민들이 가져오는 쌀과 동전을 동계스와리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극빈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함께 정성을 모아보자고 했다.

각 마을 리더들에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모두 좋다고 했다. 사실 원안은 쌀만 모으는 것이었는데, 리더들이 1루피 동전까지 모으자는 의견을 냈다. 모이는 금액만큼 극빈자 가정에 다른 무언가도 함께 전달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었다. 이렇게 마을 리더들과 논의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면서 준비는 수월하게 되었다.

행사 첫날, 마을별로 줄 맞춰 앉은 주민들에게 차례대로 담요를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이 흔치 않다 보니까, 인도JTS의 각 부서에서도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공지를 전할 수 있었다.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학교나 유치원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새는 학교 출석률이 많이 높아져 거의 97%를 넘고 있지만, 아이들이 관광객에게 구걸하러 가거나 부모가 집안일을 시키면서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교장을 맡은 뿌리양카 선생님이 주민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꼭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바카 병원에서는 병원장 까미스왈 선생님과 병원 스태프인 삼부씨가 공지를 했다. 병원에서 하는 임산부지원 날짜와 결핵 환자 신고에 대해 공지하면서,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교육 역시 짧게 진행했다.

마을개발팀에서는 각 마을의 수동 펌프 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곳에는 아직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마을마다 수동 펌프로 물을 길어 사용하고 있다. JTS에서는 매년 전체 마을에 5기 정도 수동 펌프를 설치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하고 있다. 매주 5건 정도의 수리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동 펌프를 수리할 때에는 무료로 진행하지 않고 부품비의 절반을 마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 그런데도 수동 펌프를 많이, 험하게 써서 고장이 잦지만, 수리비가 잘 모여지지 않는 마을이 있어 이 기회에 같이 공지를 했다.





“쌀은 625kg, 동전은 1,576루피가 모였다. 이렇게 모인 쌀과 돈은 동게스와리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극빈자 20가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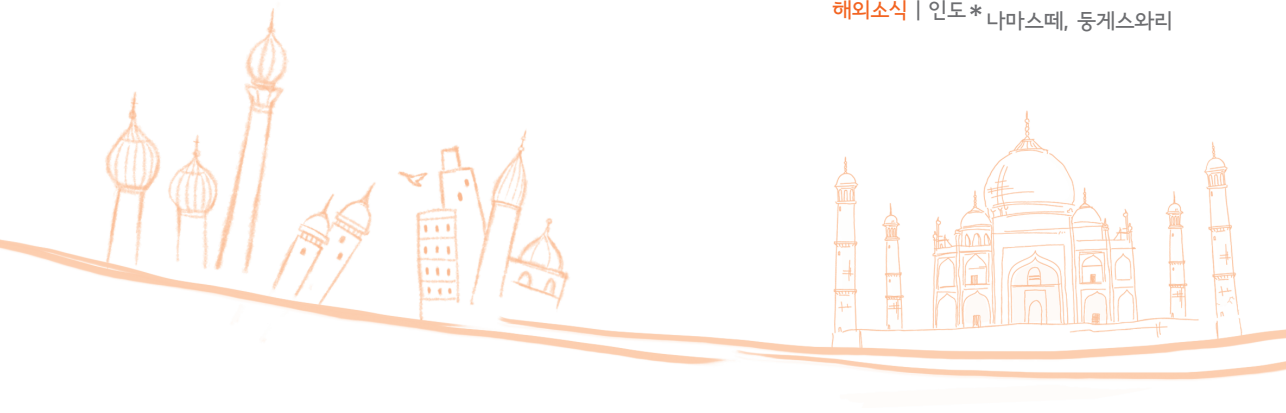
첫날은 수자타아카데미 바로 옆 마을인 ‘자그디스푸르’, 동게스와리에서 가장 못 사는 마을에 끄하는 ‘아마르푸르’와 ‘안투비가’ 세 마을이 대상이었다. 각 가구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남녀노소 다양하게 수자타아카데미에 모였다. 옛날에는 마을별로 줄 맞춰 앉히는 것도 정말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세 줄을 맞춰 앉아서 질서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제일 못사는 두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쌀과 동전을 가져와 조금씩 모아주는 것을 보니 정말 고맙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쌀을 가져왔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가져온 쌀을 내보였다. 닷새간 이렇게 매일 3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수자타아카데미에 다녀갔다.

이렇게 진행한 결과 총 91%의 지급률로 담요 전달을 마칠 수 있었다. 쌀은 625kg, 동전은 1,576루피가 모. 이렇게 모인 쌀과 돈은 동게스와리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극빈자 20가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동게스와리 전체를 돌면서 모든 집을 방문했다. 집마다 돌면서 집의 크기, 가족 수, 교육 수준, 재산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렇게 마련한 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게스와리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중 땅이나 가축 같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구걸 외에는 소득도 없는 극빈자 20가구를 추려낼 수 있었다.

극빈자 가구는 혼자 사는 노인이 대부분이었고, 장애인 가족, 소년·소녀 가장도 더러 있었다. 이곳에서는 자녀가 있어도 본인 밥벌이에 급급하여 부모를 봉양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늙은 부모를 챙길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





매년 네 번, 약 50가구에 달하는 극빈자 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면서 주로 노인이나 어린 자식이 있는 과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 전체에는 50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독거노인과 과부가 있기 때문에 극빈자 추가지원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빈자 가구 지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정당일까 하는 고민이 든다. 그래서 이번 겨울 담요지원을 하면서 처음 시도해본 것이 전체 주민이 극빈자 가구를 돕기 위해 쌀을 모으도록 한 것이다.

과연 얼마나 모일지 떨리고 기대가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모여 기쁘다.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JTS의 지원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JTS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주민들의 삶에도 이전보다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 이것이 동게스와리에서 JTS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이고 미래인 것 같다.

이제 수자타아카데미에서의 1년도 끝이 되어간다. 어느 겨울보다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냈다. 이렇게 인도에서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다.



## 민다나오 다물록 군 방문기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자!

2015년 9월 이후, 필리핀JTS는 민다나오 섬 다물록 군 4개 지역 학교에 교사 숙소와 학교 화장실을 짓고, 기존 학교 건물도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다물록 군은 2008년 이후 JTS가 14개 학교와 보건소, 묘목장, 곡식 건조장을 짓고 꾸준히 지원하는 지역이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오정심 활동가

새벽 세 시. 알람 진동에 반사적으로 일어나 미리 챙겨둔 옷과 가방을 들고 센터 숙소를 나섰다. 하늘에는 별빛이 밝다. 이번 다물록 군 방문 목적은 자체 배송과 공사 모니터링이다. 준비해가야 할 서류와 물품을 다시 점검하고 있으니 어느새 4시가 되고 미오씨가 왔다. 먼 길이라 일찍 출발해야 한다. 미오씨가 동행하니 든든하다. JTS 코디네이터인 미오는씨 기술자문이면서 이 번 교사 숙소 등 건축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기초 잡기에 참여했던 후로 같이 일하지 못했는데, 전반적인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싶어서 동행을 요청했다.

다물록 사업 담당을 맡기는 했는데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짜라 하는 일마다 실수가 잦다. 영어도 잘 안 되지, 현지어인 ‘비사얀어’는 더더욱 모르지. 담당 지역 중에는 그 비사얀어조차 안 통하고 ‘마긴다나오어’라는 이슬람교도 주민들이 쓰는 언어가 사용되는 곳도 있다. 이런 사람이 일하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하다.

첫 배송지는 인라보 마을이다. 물통과 추가 자재를 군청 미니 덤프 트럭에 싣고 가는데, 길이 말라서 흙먼지가 날린다. 처음 배송을 시작했을 때의 조바심이 떠오른다. 4개 학교 중 인라보, 킬라올라오는 산에 있고, 아폴란, 타푸난은 강을 통해 배송해야 한다. 비가 오면 길이 진흙탕이 되어 산으로 못 가고, 건조하면 반대로 강물이 줄어 배가 다닐 수 없어 강 쪽 학교는 배송할 수 없었다. 결국, 2015년 11월 10일 킬라올라오에 첫 배송을 시작했는데 올해 1월까지 타푸난에는 첫 자재 배송이 완료되지 않고 있었다.

인라보 학교 입구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몰려든다. 처음에는 낮가림하느라 멀쩡이 떨어져 구경하던 아이들이 몇 번의 방문에 어느새 익숙해져서, 친근하게 다가와 손을 이마에 대는 필리핀 전통의 인사를 한다. 조그만 손들이 내 손을 잡고 이마에 대는 것이 사랑스럽다. 학교 너머 언덕 꼭대기에 있는 교사숙소 공사현장에서는 목수 한 명과 마을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마을 아주머니들도 나와서 밥을 짓고 공사를 돕고 있다.

지난해에 학용품과 교복을 지원하면서 보니, 인라보 학교에서는 교사 세 명이 교실 한구석을 천으로 가리고 종이상자를 깐 상태로 살고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교사들 집이 도시에 있어 이런 시골 마을까지 출퇴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을에서 하숙을 하기에는, 좁은 집에 많은 자녀를 두고 생활하는 이곳의 형편상 여의치 않았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도 안정적인 생활 공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교사 숙소 건축을 지원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인라보 학교의 교사 숙소가 지어지고 있는 이 자리는, 전에 NPA(신인민해방군)와 정부군의 교전이 발생했을 때 정부군이 만든 참호 자리라고 한다. 학교가 생기자 한때 참호가 있었던 자리에 교사들의 쉼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지금은 벽을 만들고 미늘창을 붙이는 공정이 진행 중인데, 이빨싸. 벽 자재가 아직 다 안 왔단다. 지난 자재 배송 때 들고 온 것만 확인하고 그전 자재 배송분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 들어간 자재를 이쪽 것으로 착각하고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모자란 자재는 다음에 보내주기로 하고, 다물록 코디네이터인 제시 씨, 미오씨가 현장을 둘러보고 작업에 대해 안내를 했다. 미오씨가 교실 중간 벽 설치 방법과 화장실용 물통의 부품 조립 방법을 설명하면 마을 목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듣는다.



목수에게 부품조립 안내

인라보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서 한 교실을 나누어 쓰기도 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들은 아예 학교 밖에 책상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다. 다행히 필리핀 교육부에서 조만간에 추가 교실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현장을 다 둘러보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챙겨주시는 점심을 먹은 다음, 다음 학교로 이동했다.



학교 밖에서도 진행되는 인라보 유치원 수업



교실안 교사숙소

킬라올라오 마을은 미가와안 바랑가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상적인 곳이다. 학교를 지을 때도 바랑가이 직원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금방 지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업도 바랑가이의 지원이 이어져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목수 두 팀이 숙소 쪽과 학교보수로 각각 나누어서 신나게 일을 하는데, 작업공정에 포함되지 않은 일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 버려서 자재가 모자라는 일이 벌어진다. 자재를 공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하지만, 이들의 열의에 웃으며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진행 중인 킬라올라오 교사숙소 전경

타퓨난 학교는 플랑이 강을 따라 죽 이어진 JTS 지원 학교 중 하나인데, 배로 무거운 자재를 배송해야 하는데 건기에 강물 수위가 낮아져 배송이 늦어졌다.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키타스의 리더 중 한 명이 집에 자재를 쌓아두고 어서 강물이 분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라리아에 걸려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기초를 잡을 때 나와서 “힘을 못 써 미안하다”고 하던 마을 원로 살리 아저씨의 바람이 떠올라 초조해졌다.

마을에 목수가 없는 점도 걱정이었는데, 이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사령관 블랑코씨가 목수로 참여하기로 하고 옆 마을 파쿠폵의 리더 아바스씨도 목수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마침내 자재를 조금씩 날라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학교 건축에 활약하던 이들이 다시 참여한다니 다행이었다.

타퓨난 학교를 향해 가는 중에 계속 총을 든 이들이 지나간다. 마침 오늘, 지역 사령관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작업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교사의 안내로 작업장을 둘러보는데 뜻밖에도 이미 기초가 마무리되고 기둥이 서 있다. 목재도 가지런히 세워져 건조되고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자재는 이미 마을 모스크까지 옮겨져 있었다. 미오씨가 웃으며 이 정보를 모르는 것은 내 잘못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교사에게 모니터링을 부탁하고 나왔다. 그래도 마을에 자재가 들어가서 한시름 놓인다.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저녁 즈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아폴란 학교에 자재를 배송해야 하는데 비포장 길이라 진흙탕이 되어 자재를 실은 트럭이 들어갈 수 없다. 아이고, 정말 세상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대로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 교사숙소가 지어지고 있는 지역이 모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총성이 끊이지 않는 분쟁지역이었다. 이런 지역에 다물록 지방정부가 나서 평화 협상을 끌어내고 JTS가 지원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지었다.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저마다 배우고 일하면서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물록의 옥수수 구름 너머에 있는 JTS 학교에서 교사들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공부하기를 바란다.





## 길벗과 함께한 2015년 연말 명동 거리모금

12월 19일, 추위가 잠시 물러나고 따듯한 햇볕이 비치던 서울 명동 일대에서, JTS와 길벗 이 함께한 정기 거리모금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JTS는 2006년부터 지구촌의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기아와 질병, 문맹을 퇴치하자는 취지에서,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를 구호로 내건 거리모금 캠페인을 매년 어린이날과 성탄절 즈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거리모금 캠페인에는 노희경 작가님과 JTS 거리모금의 핵심인 배우 배종옥 씨, JTS 홍보대사 한지민 씨를 비롯하여, 배우 윤소이, 박진희, 최문경, 임세미, 고보결, 백승도, 이재우, 한정현, 차중호 씨가 참석해주셨고, 모델 정범중, 김동준 씨, 팝 피아니스트 신지호 씨, 가수 난아진 씨와 인디밴드 온더스팟의 리더 신궁 씨, 걸 그룹 헬로비너스의 나라, 라임, 서영 씨도 함께해주셨습니다.

거리모금에 참가해주신 분들과 더불어 언제나 거리모금 진행을 맡아주시는 방송인 김병조 씨와 뮤지컬배우 김형주 씨 부자의 맛깔나는 진행과 함께, 난아진 씨와 신궁 씨의 공연이 캠페인 참가자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을 기아와 질병, 문맹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참가자 여러분 덕분에, 추운 날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날 모금된 돈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갈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아시아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영양부족과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한 모자보건, 건강증진 사업에 고루 지원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해주신 길벗과 JTS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거리모금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공부 시간

함께하고 글쓰기 신성숙 활동가



JTS 안산다문화센터에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인들의 언어 소통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작년 8월에 개원했으니, 제가 이 한국어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넉 달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각자의 일터에서 돌아온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피곤한 몸을 끌고 안산다문화센터로 하나, 둘 모입니다. 센터 문을 열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다문화센터 원장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잠시 차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와 각자 명찰을 달고 책상을 펴면, 출석을 부르고 준비

해온 교재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동식물 이름 낱말공부, 따라 읽기, 쓰기 등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회화를 우선 공부합니다. 수업 사이사이에 동요도 함께 불러가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면,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한국어 교실은 여섯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열세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은 26세에서 33세 사이의 건장한 스리랑카인 청년들인데, 고국에 두고 온 부모·형제, 아내와 자녀를 생각하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곳 센터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과 정을 나눌 수 있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육으로 그들의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함께하는 의지가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들의 순박한 얼굴이 떠올라 빨리 만나고 싶어집니다.



## 나는 사랑을 전하는 JTS 봉사자입니다.

### 제주지부의 거리모금과 바자회 이야기

따뜻한 남쪽 섬 제주는 햇빛 비치는 날이 드문 12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바람과 추위에 걱정했는데, 드디어 12월 19일 토요일, 하늘이 화창하게 개고 기온도 제법 올랐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홍순화 활동가



제주시청 앞 어울림 광장에서 30여 명의 제주지부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JTS 거리모금 캠페인과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거리모금을 해오던 제주지부에서는 한 달 전부터 공지를 통해 모은 물품을 가지고 송년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행사 날이 가까워질수록 지부 사무실 안쪽에는 이런저런 사연을 담은 물품이 쌓여갔습니다. 담당 봉사자들은 바지런한 손놀림으로 정리한 물품을 하나씩 살펴보며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물질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의 연장입니다.



거리모금을 시작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JTS를 소개하며 듣는 이의 지갑까지 열게 하는 베테랑 정연심 활동가의 모습에, 처음 거리모금에 참여하는 봉사자의 두 눈은 휘둥그레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당당함이 있고,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봉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모금에서는 아이들이 넣어주는 동전 몇 개의 감동과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주는 감동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냈다는 점은 같기 때문입니다. 모금을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표정, 웃으며 기꺼이 홍보 전단지 받아주는 모습.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고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한 편에서는 바자회 팀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의류와 잡화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온 젊은 부부는 물품을 꼼꼼히 살펴보고는 큰 쇼핑백 가득 사 갔습니다. 출산 후 변한 몸매에 어울리는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그 돈이 또 지구촌 굶주린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고 학교를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더욱 즐거운 쇼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자회 물건이 한참 팔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팔기 위해 조바심내지 않고 느긋한 표정의 봉사자들을 보니, 역시라는 생각이 듭니

다. 물품 판매가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봉사자들도 남은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기로 합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권하고 값을 흥정하는데,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덜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갑니다.

준비한 물건을 다 팔지는 못했지만, 남은 물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기부할 것이기에 봉사자들은 판매 결과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행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은 활동가와 봉사자가 함께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무거운 물품도 지부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신속 정확하게 옮기고,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봉사자들 덕분에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진행을 함께했던 임란숙 활동가는, 많은 이들이 조금씩 기부한 물건이 모이고, 적은 돈과 작은 노력이 모여서 커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자회에서 여러 봉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광경에서, 각자 개성이 있는 중에도 어울림이 있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토대로, 서로가 어우러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으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일. 이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멋진 JTS 봉사자였습니다.



## 해운대 해맞이 행사장에서의 거리모금

함께하고 글쓴이 정미숙 활동가

1월 1일, 해운대 백사장 앞 거리에는 많은 차와 사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바닷가 백사장을 향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며 새 해맞이를 할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아마 새해 첫날, 새해 다짐을 굳히고 새 희망을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저도 매년 JTS 거리모금과 더불어 해맞이를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봉사자와 조를 이루어 백사장을 거닐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기부를 권유했습니다. “저희는 국제구호단체 JTS에서 나왔습니다. 천 원이면 굶주리는 어린이 두 끼의 식사가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 우리는 오직 그들에게 나눔을 함께 할 기회를 줄 뿐입니다. 다만 모금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운대 백사장에는 해맞이 나온 시민과 여행객이 넘쳐납니다. 그 사이사이 이 모금함을 들고 웃는 얼굴로 다가가 모금을 권유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닷바람에 빨갈게 얼어서 부은 내 손을 본 함께하는 봉사자가 장갑을 건네줍니다. 가슴 가득 행복과 사랑을 담은 둥근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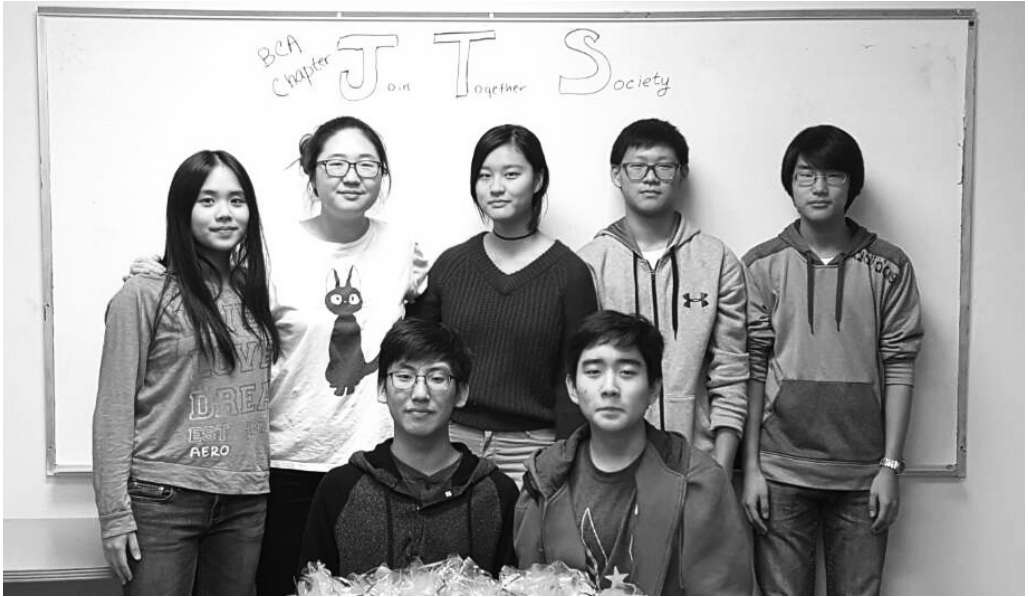
메인 부스에는 지부 부총무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단돈 천 원이면 배고픈 어린이의 두 끼 식사가 해결됩니다. 새해 아침 좋은 일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쌓여서 모금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금을 마치고 지부 사무실로 돌아와 기부금을 결산하는데 배고픈 어린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모금한 동전 한 닢 지폐 한 장에 함께한 봉사자들, 낯 모르는 기부자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있었습니다.

모금을 위한 1박 2일의 짧은 여행. 저의 새해 첫날은 이렇게 축복과 정성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 미국 뉴저지 BCA 고등학생들, JTS 교내 정규 클럽 설립

### 연말 직접 구운 과자와 초콜릿으로 JTS 모금활동

함께하고 글쓴이 백은주 활동가

미국 뉴저지주의 명문고등학교인 버겐카운티 아카데미(BCA) 고등학교 한인 학생들이 주도하여 교내에 JTS 정규 클럽(BCA-JTS)을 설립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JTS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모금활동을 통해 JTS 활동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일은 종종 있었는데, 학교 내 정규 클럽을 결성한 것은 한국에서도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클럽 설립을 주도한 황보영, 류세라 두 학생이 12월 27일에 뉴저지 정토포당을 방문했습니다. 두 학생은 클럽 설립을 위해 한국 JTS 본부에 의사를 전하고 학교의 인가를 받기까지, 정관을 만들고 활동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클럽 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모금한 금액을 전달한 후, 활동하며 느낀 소감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CA-JTS 클럽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이미 일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학생들의 JTS 활동에 관심이 컸던 김윤진, 허윤주, 강은영 씨의 자녀들과 그 친구들인 BCA 고등학교 학생들이 2014년 12월 6일 뉴저지 정토평당을 방문하여 첫 모임을 했습니다. 맨하탄 정토평당 양영주 씨의 통역과 사회로 JTS의 홍보영상을 보며 JTS의 취지와 활동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 연말 모금계획을 논의하고 그로부터 2주 후 한인슈퍼마켓 앞에서 첫 거리모금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과 더 많은 학생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 클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JTS의 필요한 절차를 밟는 한편, 활동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영어로 된 JTS 소개자료를 PPT로 자체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2015년 10월부터는 종교가 다양한 회원들을 위해, 법당 대신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정기모임을 했습니다. 인도 JTS에 보낼 목도리를 짜며 힐링 타임을 가지기도 하고, 부엌에서 모금용 과자를 구워 그 일부를 센터에 감사의 표시로 기부하기도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JTS에 전달된 모금액은 미국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Bake Sale' 형식으로 모금한 것인데, 2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직접 과자를 구워 판매한 것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박하향 성탄절 전통 초콜릿을 만들어 신청자가 친구나 선생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기부금과 함께 내면, 초콜릿을 포장해서 메시지와 함께 배달해주는 특별행사를 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쿠키 굽는 것이라 초콜릿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JTS를 통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잖아요.”라고 BCA-JTS의 공동설립자인 류세라 학생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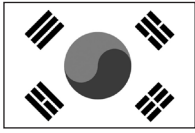
클럽의 리더인 황보영 학생은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하며, “작년(2014년) 연말 거리모금 준비할 때 본 JTS 다큐멘터리에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충격을 받았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 클럽을 만들었는데, 저는 리더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회원들 간에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배고픈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기분도 좋았어요. 봉사는 하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어요.”라며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뿌듯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 학생들이 주도되어 총 27명의 회원이 가입한 BCA-JTS 클럽은, 미국JTS와 정토회 뉴저지법당의 후원하에 클럽을 보다 활성화하여 정착시키며 JTS의 봉사 정신을 세계 각 지역에 전파하는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 김윤진 님 감사합니다. BCA-JTS 클럽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Korea 국내소식



### 1. 안산다문화센터 겨울옷 알뜰장터

안산다문화센터를 찾는 다문화인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따뜻한 나라 출신입니다. 더욱 춥게 느껴질 한국의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겨울옷 알뜰장터를 마련했습니다. 12월 13일, 센터에서 열린 스리랑카 법회에 맞춰 봉사자들과 함께 각지에서 기증받은 겨울옷을 구매자들도 놀랄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이날 알뜰장터의 판매 수익금은 모두 JTS 후원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 2. 다문화인 의료지원과 미용 봉사

안산다문화센터 알뜰장터와 더불어, 다문화인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미용 서비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재활의학과 박용원 선생님의 재능기부로 스리랑카인 13명이 건강 상담을 받았고, 안양지부 황정연님과 새터민 봉사자 한 분이 다문화인들을 위한 미용 봉사에 나서주셨습니다. 알뜰장터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인천·경기지역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India 인도



### 1. 수자타아카데미 중학생 소풍

오전에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봉사하고, 집에 가서는 집안일을 하며 쉴 틈 없는 수자타아카데미 중학생들이 오랜만에 한숨 돌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뿌리양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가야산을 등반하고, 시내에서 영화도 한 편 보았습니다. 남학생들은 자전거로 씩씩 달렸지만, 여학생들은 옹기종기 리스를 타고 가느라 불편할 법도 한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 2. 우리가 키운 무로 담근 김치

요즘 인도는 무가 제철입니다. 학교 텃밭에서 키운 무가 점심시간 맛있는 반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를 많이 심어 한창 생것으로, 반찬으로 먹었는데도 무가 한 수레나 남았습니다. 남은 무로 중학생들과 함께 무김치를 담아보았습니다. 무를 씻고 소금에 절여서 모두 함께 먹을 생각을 신나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인도 사람들도 맛있다고 할까요?



### 3. 바가히 유치원 학부모 회의

12월 12일, 바가히 마을 유치원에서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매달 학년별로 학비를 걷는데, 바가히 마을은 잘 걷어지지 않아서 운영 차질이 많았습니다. 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이 주민들에게 아이들을 계속 공부시킬 의사가 있는지 묻고, 학비를 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 4. 유치원에 드라이푸드가 도착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산 너머 유치원에 트럭으로 드라이푸드 배달을 갑니다. 가알비가 마을의 크고 힘센 고학년 학생들은 트럭이 도착하면 신나게 달려와서 드라이푸드를 이고 지고 교실로 나옵니다. 이 드라이푸드는 매일 한 아이에게 80g씩 제공됩니다.



### 5. 골절환자 깁스 치료 시작

지바카 병원의 의사 까미스왈씨가 석고 깁스 교육을 받은 후, 올해부터 지바카 병원에서도 골절 환자에게 깁스 치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게스와리에는 한 달에 2~4명 정도 골절환자가 발생하는데, 이제는 골절 발생 후 즉시 처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6. 램프로 인한 화상사고

동게스와리에 전기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집에서 기름 램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바카 병원에는 실수로 램프가 넘어지면서 쏟아진 기름불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종종 찾아옵니다.



### 7. 동게스와리 극빈자 구호사업

2015년 극빈자 구호사업 마지막 회차가 12월에 있었습니다. 총 52가구에 3개월 치 식량인 쌀 15kg, 달(콩) 5kg, 겨자기름 500ml과 담요 한 장씩을 지급했습니다. 산 너머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수자타아카데미 분교에서 구호물품을 지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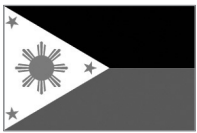
### 8. 1,500가구에 담요 지원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약 1,500가구에 담요를 한 장씩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마을 서로 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로부터 쌀 한 줌과 1루피씩을 모금하여 극빈자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쌀 625kg과 1,500루피가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모두 마음은 따뜻하게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 했습니다.



### 9. 해외에서 온 겨울 의류 선물

미국JTS와 유럽의 JTS 지부를 통해 전해진 겨울 의류 선물이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이 정성스럽게 손으로 직접 뜬 모자와 목도리, 장갑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두 달간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학교에 나온 96명의 학생에게 개근상장과 함께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나머지 물품도 곧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 Philippine 필리핀



### 1. 실리폰 초등학교 교복 및 문구류 지원

12월 18일,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교복과 문구류를 들고 JTS 센터 인근의 실리폰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이번 지원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날 진행되어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 2. 라나오 델 노르페 주 무나이 군 교복 지원 및 학교 보수 사전 답사

11월 24~25일 양일간 무슬림 지역인 라나오 델 노르페 주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코디네이터 도동씨의 안내로 무나이 군 3개 초등학교 학생 536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올해 사업지로 예정된 땀뻘란 예비 초등학교와 마룬дук 유아원을 답사했습니다.



### 3. 민다나오의 새 활동가

민다나오의 새 가족이 된 김수, 이정자 부부활동가가 시범농장에서 채소를 길러 현지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법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온 변화가 적고 평균기온이 높아 씨앗이 조기 발아하고 채 자라기도 전에 벌레가 먹어버려, 배추는 씨만 뿌리고 구경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싱싱한 열무와 상추쌈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해운대에서 온 단기 해외 봉사자들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다섯 명의 봉사자들이 민다나오JTS 센터를 방문하여 활동을 견학하고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시범농장에 열대과일 과수원을 만들었고, 만타부 학교도 방문하고 알라원 마을에 푸집한 연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 China 중국



#### 1. 룡정시 유치원 및 빈곤학생에 내복 지원

12월 11일, 중국 룡정시 정도복지협회를 통해 안민 소학교의 빈곤가정 학생 120명에게 겨울 내복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에는 룡정시내 꽃봉오리 유치원의 345명의 유수아동(부모가 돈벌이를 위해 타지나 해외로 떠나, 혼자 집을 지키는 아이들)에게 내복을 전달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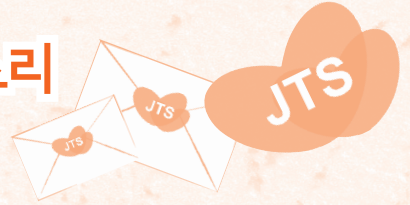
장도연, 뿌리앙카, 박중화, 박영민, 강명희, 김미정, 심애남, 정유진, 정동표, 김윤미,  
\*강혜정, \*박세환, \*백은하

#### 필리핀

안병주, 김희자, 박영일, 원석환, 이진옥, 송우진, 홍민지, 박시현, 오정심,  
\*김수, \*이정자, \*송치현, \*조혜림



## 후원인의 소리



이준아 너의 첫 생일이야. 엄마아빠는 널 정말 사랑해서 이 마음을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싶어. 이준아 사랑해^^  
- 하추자 -

학생들의 수학풀이노트기부를 통한 기부를 진행합니다. 북한어린이들에게 평화가오기를 기원합니다.  
- 이창재 -

작은 도움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 양혜진 -

임경성 어린이가 굶고 있는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 임근영 -

작년에 이어 아이 생일에 늘 뜻깊은 곳에 후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좋은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김정윤 -

이수선님 덕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김갑선 -

연정이가 이 세상에 온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연정이가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길 바래~  
- 오연정 -

추운날씨에 힘들 북한동포와 미안마 홍수피해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JTS봉사자분들의 안녕도 기원합니다.  
- 문진영 -

이수선님 덕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김갑선 -

취준생 정진문 생일을 맞이하여 모든청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 정백기 -

결혼기념일이예요. 우리 부부 건강하고 무탈하게 정답게 백년해로하길 기원합니다.  
- 이동원 -

여자친구와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좋은 일에 잘 쓰이기를 희망합니다.  
- 이태호 -

미사중양초 2-1반 교사와어린이가 모은 돈입니다.  
- 이효정 -

필즈수학원에서 학생들이 수학노트를 한권씩쓰게 되면 5000원씩 기부하게되고 10권이 될때 마다  
50000원의 성금을 내기로 약속하여 세번째로 기부하게 되었네요.  
학생들이 수학공부도 열심히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뻐마음으로 한답니다. 북한어린이 돕기에 힘을 보탭니다.  
- 이창재 -

# 특별후원금 (2015. 11. 01. ~ 2015. 12. 31.)



## 2015년 11월 복 한 결 연

강희란 10,000	허태영 10,000	서양숙 10,000	김승희 30,000	박희자 10,000	유소영 10,000
공연표 100,000	홍순형 제천 200,000	신재영 10,000	김영선 100,000	배정은 10,000	유승우지호서 80,000
곽도순 10,000	홍진숙 500,000	신종섭 10,000	김목자 30,000	백경화 20,000	유연서 100,000
김경미 30,000		웹브랜드 20,000	김은하 60,000	백기덕 1,000,000	유재호(국제구호)
김권태 50,000		이진일 20,000	김은숙 100,000	백승분 10,000	10,000
김성욱 300,000		정민호 20,000	김은숙 100,000	범일법화윤혜경 350,000	유지환 1,000,000
김승희 30,000		하추자 50,000	김은정 200,000	변동해 10,000	유효숙 31,290
김진 30,000		한양희 50,000	김은정 80,000	부솔비 34,890	윤경미 30,000
김진환 20,000		홍진숙 40,000	김인자5100 100,000	김재호 100,000	아기은2409 100,000
김해경 100,000			김재호 100,000	김정자 30,000	이경은 10,000
나경주 100,000			김정자 30,000	김진환 20,000	아귀숙 20,000
남주미 60,000			김진환 20,000	김현정 10,000	이동규 30,000
남화정 30,000			김현정 10,000	김혜숙9969 30,000	이미향 10,000
박상원 30,000			김혜숙9969 30,000	김혜인 300,000	이병분6091 200,000
박원임 10,000			김혜인 300,000	나연우 10,000	이삼숙 53,500
백경화 20,000			나연우 10,000	노수정 20,000	이서은 36,260
서양숙 30,000			노수정 20,000	노하진 10,000	이순옥 35,770
소민경 150,000			노하진 10,000	대구제일여상 300,000	이승진 서대문 22,770
신재영 10,000			대구제일여상 300,000	동대구역성프로	이영순 50,000
신종섭 10,000			동대구역성프로	나임관리단 290,000	신동현 10,000
유민재 50,000			나임관리단 290,000	래플즈동물병원 500,000	신재영 10,000
이금숙 5,000			래플즈동물병원 500,000	류수진 30,000	신종섭 10,000
이준혁 300,000			류수진 30,000	박계만 10,000	삼백 10,000
이진일 20,000			박계만 10,000	박관자 20,000	야구바 700,000
임규연 30,000			박관자 20,000	박규흠 10,000	안병주, 김희자 20,000
정민호 20,000			박규흠 10,000	박다정 50,000	안산산문화센터 180,000
정명화 50,000			박다정 50,000	박미나 250,000	안산아미준 10,000
최건업 50,000			박미나 250,000	박상철 100,000	안산영 50,000
하추자 50,000			박상철 100,000	박순양 20,000	양영은 100,000
한성욱 50,000			박순양 20,000	박승자광주 10,000	양해진 1,000,000
한양희 50,000			박승자광주 10,000	박옥경 120,000	오민정 5,000
홍진숙 40,000			박옥경 120,000	박원임 10,000	오윤경 10,000
			박원임 10,000	박유란 100,000	오즈악국김현아 100,000
			박유란 100,000	박정숙 300,000	100,000
			박정숙 300,000	박정연회향비 100,000	윤희욱 30,000
			박정연회향비 100,000	박정자 10000	우소영 6296 30,000
			박정자 10000	박종현 300,000	우원서 1,000,000
			박종현 300,000	박지예 81,130	유동근 50,000
			박지예 81,130	박현진 100,000	유미화 50,000
			박현진 100,000	유소영 41,350	유병일 41,350
					정수연 700,000
					장순석 5,000
					장안관4693 100,000
					재찬제선 50,000
					전미정 100,000
					전주권민우 53,930
					전주김선화 37,580
					전창희 10,000
					정경아 30,000
					정교필 100,000
					정선아 50,000
					정유진 31,000

### 인도 및 제3세계

### 필 리 핀

### JTS 전체사업

0173624453

2110066311 20,000

(주)교보문고 23,000

강민경 40,000

강병모 50,000

강정숙 20,000

강현태8331 10,000

강희란 10,000

고수자 50,000

권영세 50,000

권오정 100,000

권은하 50,000

금심승민승필 30,000

김경아 100,000

김경희 5,000

김권태 150,000

김남수 100,000

김미숙 22,750

김미옥 6,000

김미향 50,000

김민수 30,000

김민지 311,700

김봉생 15,000

김세화 130,000

김소희 100,000

김수아 100,000

김수영 10,000

김수윤 10,000

정도법당(천일결사)	내	팔	김승준	50,000	정성채	50,000	필리핀	기락관광호텔			
500,000			김승희	30,000	조정례	180,000		10,000,000			
정혁민	3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0	조자매	100,000	고결희	10,000	가은숙	6,140
제한옥	300,000	김장민	7,500,000	김윤홍	54,720	조혜진	50,000	권용혜	10,000	강민경	40,000
조남숙	20,000	김진환	20,000	김윤희	500,000	최동녘	50,000	김갑선	100,000	강민숙	87,000
조서인	30,000	김현정	10,000	김은정	50,000	하지민	10,000	김나련	20,000	강진영	10,000
조영자	20,000	남택관	50,000	김인호	80,000	한동규	5,000	김미정	10,000	결성농협	197,950
조정숙	200,000	민혜정	50,000	김재익	100,000	한성욱	50,000	김승준	50,000	고선아	1,107,000
주현희	100,000	박유진	50,000	김준형	100,000	허대영	10,000	김승희	30,000	곽봉준	100,000
중국에서	30,000	백경화	20,000	김현정	10,000	홍진숙	40,000	김유진	200,000	구영희	1,000,000
지양순	200,000	북로그컴퍼니		나경원	100,000	<b>인도 및 제3세계</b>		김진환	50,000	권경민	100,000
진영희	10,000		2,500,000	나경주	50,000	고결희	10,000	김현정	10,000	권영세	50,000
차지은	30,000	소진호	30,000	나윤희나윤서	30,000	권용혜	10,000	나희원	50,000	권용혜	20,000
최건업	20,000	신재영	10,000	문진영	65,630	김갑선	100,000	박경옥	20,000	권은하	20,000
최경자	50,000	신종섭	10,000	박경옥	50,000	김나련	20,000	백경화	50,000	권진	2,400
최만식	300,000	유창선	50,000	박기욱	100,000	김미정	10,000	백서이	20,000	권현진	200,000
최복림	100,000	이금숙	10,000	박서영	5,000,000	김승준	50,000	성영선	4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최선희	100,000	이인철	50,000	박완임	10,000	김승희	30,000	신재영	10,000	김갑선	200,000
최유규	70,000	이진승	30,000	백서이	50,000	김유진	200,000	신종섭	10,000	김경미	10,000,000
최윤정 사대문	30,600	이항숙	100,000	백진구(동명한의원)	300	김진환	50,000	윤장인	50,000	김강범	61,630
최종환6065	50,000	임규연	30,000	북한결연	2,400	김현정	10,000	이금숙	5,000	김강아	100,000
최훈선	100,000	정민호	30,000	성영선	40,000	나희원	50,000	이진일	20,000	김경희	5,000
플러스4인방	8,000	정현옥	30,000	손종욱	131,000	박경옥	20,000	임규연	30,000	김광현	200,000
하지민	10,000	천형준	259,000	신재영	20,000	백경화	50,000	정현옥	30,000	김도윤	138,000
하추자	150,000	하지민	10,000	신종섭	20,000	백서이	20,000	조자매	100,000	김명숙	10,000
하희남	99,000	하추자	50,000	오일환	30,000	성영선	40,000	최동녘	50,000	김문주	100,000
한동규	3,000	한동규	5,000	유한택	150,000	신재영	10,000	필리핀	2,400	김미옥	3,000
한명숙3378	50,000	홍진숙	50,000	윤장인	50,000	신종섭	10,000	하지민	10,000	김민수	30,000
한미영	30,000			이금숙	5,000	윤정인	50,000	홍진숙	50,000	김서윤	50,000
한양순	100,000	<b>2015년 12월</b>		이미란	50,000	이금숙	5,000	<b>JTS 전체사업</b>		김성훈	10,000
한양희	50,000	<b>북한결연</b>		이용식	100,000	이진일	20,000	0173624453		김소연	15,000
함미정	60,000	권경희	30,000	이은미	50,000	임규연	30,000	100,000		김수영	10,000
한금일금	10,800	권용혜	10,000	이종혁	10,000	정현옥	30,000	2110066311	20,000	김수윤	10,000
홍재영백일기념	100,000	권우주	165,000	이창재	50,000	조자매	100,000	(주)오메가포인트		김승준	50,000
홍진숙	1,200,000	김갑선	100,000	이호식	10,000	최동녘	50,000	10,000,000		김승희	50,000
황경숙	20,000	김경미	100,000	이호정	60,000	필리핀	2,400	Eunheeso	909,985	김연수	1,000,000
황영애	10,000	김경미	30,000	장미정	100,000	하지민	10,000	구미중학교학생일동		김영선	100,000
후원금	100,000	김미영	100,000	장미정	50,000	홍진숙	50,000	164,000		김영숙	200,000
후원합니다.	200,000	김미정	10,000	장순석	10,000			100,000		김용애	500,000
		김성훈	50,000	전경혜	20,000			jts	100,000	김옥	400,000
										김윤하	10,000

활동터 소식 | 후원\* 특별후원금, 해외후원금

김유진 200,000	박경자 5,000,000	소진호 30,000	유현주 50,000	정서진 90,000	허진혁 1,000,000
김은정 400,000	박계만 10,000	손영희 200,000	유현지 50,000	정연우 86,000	홍경주 200,000
김은정 210,000	박관자 10,000	손창남 100,000	윤경미 30,000	정영선 30,000	홍단희 20,000
김웅 300,000	박규흠 10,000	손현희 10,000	윤명실 1,000,000	정음점 300,000	홍동중학교1학년일동
김응서 100,000	박금주 50,000	송석연 1,000,000	윤옥순 500,000	정음조형자 150,000	137,900
김임수 30,000	박노백 100,000	송선진 100,000	윤정인 50,000	정인규 30,000	홍영희 10,000
김재욱 400,000	박보성 300,000	송중수 100,000	윤채현 50,000	정필숙 300,000	홍진숙 50,000
김재익 100,000	박상철 100,000	시드나정토회 211,230	이경구 30,000	정혜선 30,000	황영애 10,000
김정연 70,760	박상훈 100,000	신광섬 영주 86,870	이계화 1,000,000	조갑순 1,000,000	황제호 30,000
김정윤 20,000	박순양 20,000	신광시 50,000	이광성 100,000	조경태 30,000	후원금 1,000,000
김주빈 50,000	박원임 10,000	신동근 50,000	이귀숙 20,000	조경화 50,000	
김주완 100,000	박용희 100,000	신동현 10,000	이길림 500,000	조영자 20,000	<b>네 팔</b>
김지식 50,000	박유란 100,000	신세라 3,000,000	이덕규 2,000,000	조정현 50,000	
김지식 200,000	박윤정 30,000	신연숙 1,000,000	이덕산 30,000	조지애 200,000	김성윤 30,000
김지향 5,000,000	박일 100,000	신재영 10,000	이동원 150,000	주도완 200,000	나희원 50,000
김지현 50,000	박장배 30,000	신종섭 10,000	이미향 10,000	주식회사 세상에서	조동훈 30,000
김진석 30,000	박정숙 300,000	신형현 200,000	이상호 500,000	20,000,000	조영달 30,000
김진환 50,000	박정자 5,000	신현미 37,270	이상훈 1,000,000	주식회사지니어스	조예준 30,000
김창익 100,000	박준규 500,000	심백 10,000	이선옥 10,000,000	5,000,000	최동년 50,000
김창익 100,000	박진욱 200,000	심순덕 영주 26,000	이소담 50,000	중국에서 30,000	
김태균 300,000	박현진 100,000	심지현 50,000	이소령 10,000	중앙초1-4 41,400	
김태일 1,000,000	박화자 10,000	안병주, 김희자 20,000	이승호 50,000	지금주 100,000	
김환성 5,000	박화근 100,000	안산다문화센터 63100	이연주 40,000	지애엠 2,000,000	
김환정 10,000	박화정 130,000	안성삼 500,000	이윤선 100,000	진영희 10,000	
김현철 5,000	반미정 30,000	안처애 100,000	이은미 50,000	차은경 360,000	
김혜숙 500,000	배동규6047 70,000	양승돈 150,000	이정규 300,000	차지은 30,000	
김혜영 100,000	배성호 460,000	양윤석 100,000	이정여 5,000	채지영 200,000	
나연우 10,000	배소민 1,000,000	엄윤주 20,000	이종호 500,000	천형준 80,000	
나용락 5,000	배정훈 1,000,000	엄인용 200,000	이주형 10,000	최경자 70,000	
노희경 2,000,000	배진숙 50,000	영남대병원 1,000,000	이창석 제주 200,000	최동년 100,000	
논비산마을 500,000	백경화 50,000	오길순 250,000	이태호 50,000	최석호 10,000,000	
대구최재호 101,120	백미경 10,000	오대환 50,000	이현수 230,000	최선연김현주 100,000	
대전연꽃모임 380,000	백서이 60,000	오선옥 50,000	이현숙 100,000	최영희 1,000,000	
독일정토회	백은숙 2,000,000	오연정 100,000	이호용 3,000	최우규(김은진) 70,000	
15,861,391	변동해 10,000	옥선옥선 68,900	임근영 313,000	최은심 40,000	
류수진 30,000	복로그컬퍼니	윙희옥 5,000	임영광 470,000	최재경 10,000	
명가재건 1,050,000	2,000,000	우성배 50,000	임준옥 500,000	최재희 100,000	
무주상 500,000	불면석까페 1,000,000	우원석 500,000	임현숙 100,000	최현빈 100,000	
문근희 100,000	서성원 100,000	우정석 66,070	임희정 500,000	최현숙 360,000	
문정환 1,000,000	서초희망강연보시	원호연 140,000	장명진3249 20,000	편옥희 70,000	
문진영 34,370	772,000	유동근 100,000	장수연 100,000	플리스4인방 8,500	
문태훈 30,000	선정고등학교 300,000	유미화 100,000	장영애 185,200	하은환 4151 36,080	
문혜영 10,000	שלש정 200,000	유산미 100,000	장현주 500,000	한경수 750,000	
민지선 50,000	성영선 30,000	유재호(국제구호)	정경아 30,000	한명수 750,000	
박경애 300,000	성정희 1,600,000	10,000	정백기 100,000	한지민 20,000,000	

# 해외JTS 후원금 (2015. 11. 01. ~ 2015. 12. 31.)

## 미 국 J T S 2015년 11월

김경민	\$100.00
김영자	\$1,000.00
김윤진	\$50.00
김학노/김순미	\$50.00
노유경	\$50.00
무장보 - 현금	\$158.00
무주상	\$5.00
무주상	\$100.00
민덕홍	\$120.00
박경배	\$100.00
박승용	\$30.00
박정희	\$300.00
박현수	\$100.00
유승목	\$20.00
이동영	\$400.00
임선희	\$50.00
장영경	\$50.00
정수길/홍희선	\$50.00
정호선	\$100.00
최만성	\$20.00
한복희	\$100.00
한정희	\$100.00
A&J Seattle, LLC	\$200.00
BENEVITY	
COMMUNITY	
IMPACT FUND	\$500.00
FREDERICK C	
SCHEFFEL	\$60.00
HAENGCHA Y	
CHONG	\$50.00
JUNG IE JUN	\$30.00
JUNGHOO SON	\$200.00
KUNG O HONG	\$100.00
KYUNG J KIM	\$100.00

Matthew Lee	\$123.00
MICHAEL W YANG	\$62.00
MICHAEL W YANG	\$31.00
MICHAEL W YANG	\$80.00
MICHAEL W YANG	\$31.00
YOUNGJIN CHA	\$10,000.00

## 미 국 J T S 2015년 12월

강지은	\$50.00
김소미	\$100.00
박은선	\$100.00
박현숙	\$50.00
윤해정	\$100.00
이수정	\$100.00
최상중	\$100.00
강석기/박길림	\$100.00
강석우	\$20.00
구수경	\$10.00
권남수	\$100.00
김기남	\$5.00
김명	\$100.00
김명호	\$100.00
김명희	\$80.00
김성세	\$365.00
김성순/최영태	\$150.00
김세희	\$300.00
김소미	\$100.00
김숙현	\$200.00
김윤진	\$50.00
김정미	\$10.00
김재원	\$300.00
김지현	\$30.00
김학노/김순미	\$50.00
김학노/김순미	\$50.00
김해숙	\$100.00

노유경	\$50.00
노진연&김문석	
뉴욕법당 저금통	\$1,000.00
뉴저지정토	\$88.00
무주상	\$5,000.00
무주상	\$5.00
무주상	\$100.00
문경옥	\$5.00
박경미	\$50.00
박경배	\$120.00
박승용	\$30.00
백은주/김요셉	\$100.00
밴쿠버 법당	\$255.00
서홍석	\$20.00
손정훈	\$200.00
시드니정토회	\$1,290.00
안산영/석희목	\$50.00
오명석/윤시내	\$100.00
오상은	\$30.00
워싱턴정토회	\$200.00
워털루열린법회	
불교대학생	\$300.00
유승목	\$20.00
유주영	\$90.00
유주영	\$20.00
유지향	\$10.00
윤성용	\$5.00
이도현, 손현진	\$100.00
이동영	\$400.00
이동우	\$200.00
이미화	\$50.00
이수정	\$100.00
이연순	\$100.00
이정민	\$100.00
이정희	\$10.00
이정희	\$100.00
이정희	\$100.00

이주희	\$700.00
이지수	\$100.00
이지훈	\$90.00
이지훈	\$50.00
이학우/영숙/상훈/상호	\$200.00
이혜란	\$5.00
이화순	\$700.00
이화영	\$20.00
이효석	\$300.00
임선희	\$200.00
장재규	\$100.00
정민지	\$20.00
정복교	\$100.00
정수길/홍희선	\$50.00
정호선	\$100.00
조은호	\$100.00
차지근	\$200.00
최경숙	\$100.00
최내영	\$1,000.00
최상중	\$100.00
최수영	\$100.00
한승원	\$170.00
한혜진	\$100.00
허윤주	\$50.00
홍기윤	\$334.00
황경옥	\$1,000.00
A&J Seattle, LLC	\$40.00
A&J Seattle, LLC	\$40.00
A&J Seattle, LLC	\$40.00
A&J Seattle, LLC	\$40.00
A&J Seattle, LLC	\$40.00
BCA JTS(황보영외)	\$306.40
Benevity	\$50.00
HAEN GCHA Y	
CHONG	\$50.00
HUI YONG RARLIFF	

	\$30.00
Hye Young Yi	\$19.42
Hyunjun Chong	
	\$19.60
JAYE LEE	\$50.00
Joung Bang	\$20.00
KUNG O HONG	
	\$100.00
Kyu H Han	\$40.00
KYUNG J KIM	\$10.00
Linda Davies	
	\$100.00
MICHAEL W YANG	
	\$31.00
Myungsook Shin	
	\$1,000.00
No Info - Cash	
	\$260.00
No Info - Cash	
	\$40.00
No Info - Cash	
	\$120.00
SINKEUN KIM	
	\$100.00
Smart Iron	\$300.00
SOO JIN YOUNG	
	\$50.00
TIP J ENTERPRISES	
	\$500.00
Tisha Chong	\$20.00
YOUN KYONG WON	
	\$300.00
YOUNGJIN CHA	
	\$3,000.00
Youngkyung Jang	
	\$50.00

# 나눔저금통 현황 (2015. 11. 01. ~ 2015. 12.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 강서

강정미 19,850 김명남 16,010 김인자  
23,240 김정화 30,420 무명 49,650 무명 9,510  
민복태 40,380 박귀만 5,000 박소영 17,320 박종  
길 33,400 신의주 24,960 여은애 28,890 오향숙  
14,240 유병철 56,950 이은숙 2,560 정영숙 35,500

## 강화

강희법당 150,100

## 거제

거제법당 206,980 거제법당 73,330

## 경기광주

경기광주법당 95,410

## 경산

강라경 4,570 강민재 5,610 강우경 16,140 권성  
은 17,420 권태은 14,820 김가인 11,500 김가영  
10,450 김경민 500 김근호 10,750 김라희 7,290  
김민준 9,860 김병근 6,190 김병재 5,360 김보  
경 15,420 김보경 16,440 김시환 14,960 김시환  
16,450 김여울 13,070 김혜하 6,910 김은유 3,850  
김유리 5,410 김재범 10,270 김준서 14,160 김지섭  
1,830 김지연 11,800 김지훈 16,590 김한빛 3,800  
남기숙 10,000 도건호 32,210 도우성 18,520 박  
미애 23,750 박민수 22,780 박소영 19,700 박수  
민 18,100 박순호 15,000 박우현 10,680 박은혜  
10,200 박준형 18,260 박현준 7,420 방시윤 23,300  
방시윤 29,680 배재현 7,970 변지민 31,780 서동국  
7,460 손동영 7,700 손원기 8,010 손희숙 20,050  
안리유 16,040 양라윤 9,960 윤주현 27,750 윤진  
호 3,380 윤호열 2,320 이강준 6,150 이나경 4,200  
이도경 7,870 이도현 2,110 이동건 4,400 이동건  
6,140 이은이 11,020 이승현 1,380 이예성 4,060  
이예준 4,050 이윤찬 8,210 이의찬 11,440 이준수  
11,080 이지호 6,040 이지후 2,200 이태규 8,030 이  
태현 18,620 이하은 20,100 이후남 10,000 임정선  
14,000 임준모5,100 장시우 6,060 정현 14,590 정다  
경 6,640 정성우 7,620 정성훈 1,430 정아인 16,390  
조강윤 7,150 조시은 18,820 조아인 6,510 조연우  
15,540 조영문 7,920 조이현 22,920 주상민 10,830

주원준 8,770 주형준 7,040 최문경 6,990 최준석  
5,940 최자석 8,050 허인숙 28,410 허인숙 41,610  
허인숙 14,900 허인숙 33,340 허인숙 48,700 허정현  
10,000 홍지민 12,560 황서연 2,870 황서준 11,080  
황지화 8,790 황청우 12,400 황현균 6,750

## 경주

권기영 54,160 김미현 28,260 무명 40,520 무명  
72,740 박순환 5,640 손인권 30,000 손인권 50,000  
이경옥 76,320 이영자 26,530 이은서 10,170 이  
종선 14,770 전문재 25,680 최영애 32,060 최윤순  
32,320 황분옥 27,250

## 고성

고성법당 201,550 고성법당 73,540

## 광명

김현영 25,370 무명 39,610 서태원 96,850 안순  
금 23,790 오은숙 31,140 이미자 38,360 이용  
희 17,600 장연순 25,880 정효숙 29,011 정기성  
87,740

## 광주

광주법당 383,570 광주법당 54,520

## 구리

신지연 21,530 안경숙 22,110 최윤희 33,240 최진영  
13,250 황희향 48,000

## 구미

구미법당 127,700 구미법당 79,770

## 권선

권선법당 113,310 권선법당 246,610

## 기장

기장법당 81,970

## 기흥

기흥법당 207,000

## 김천

김천법당 20,390 김천법당 10,960

## 김해

김해법당 152,030 김해법당 263,180 김해법당  
183,470

## 남양주

광동중학교 325개 1,941,670 {1-1반 (강구진 1,000  
강우혁 18,790 강현 1,860 김나영 6,180 김민주  
10,730 김성욱 9,000 김성진 600 김승이 2,250 김  
은서 5,320 김준수 530 도남경 2,570 반소연 2,290  
송재은 12,360 신현수 3,910 염승완 12,000 유다정  
18,810 유영민 6,200 유영완 4,300 윤무영 4,000  
이강혁 1,000 이지수 18,050 이재원 1,790 이태희  
1,440 임수빈 970 장서원 2,750 조주연 4,790 최민  
혁 600 최형준 6,420 한규민 260 현지호 7,210 1-2  
반 (구름 3,850 권준희 19,230 민수영 7,850 박수빈  
2,850 백혜민 3,110 양서현 11,180 유나현 5,300  
윤소윤 5,490 이민수 1,000 조도빈 1,600 차진영  
8,900 한수민 470) 1-3반 (김건우 10,060 김수연  
1,740 문예빈 2,720 박지은 8,100 백승덕 5,670 백지  
영 7,000 송성연 2,470 심혜연 2,620 양정환 5,620  
이슬 6,880 이승호 5,000 이우민 10,710 임세영  
1,320 전주현 19,200 정혜윤 2,640 조명준 16,000  
조명준 3,320 조윤서 9,000 천규민 12,120 최태원  
5,400 최형준 2,140 한규미 3,670 한승이 590 현주  
현 5,330) 1-4반 (김다영 16,250 김민수 2,970 김승  
찬 500 김준이 8,880 김지윤 1,170 김채린 1,390 김  
채영 8,490 니더은 4,200 노효선 9,270 무명 10,170  
무명 2,700 문승희 3,980 송영훈 1,000 양현준  
13,810 양희수 840 유의택 1,610 윤다솜 10,310 이  
예준 10,050 이종석 2,500 이준호 13,960 정경주  
6,350 주민교 1,590 진상우 5,330) 1-5반 (김세민  
8,230 김소연 19,430 김지윤 7,300 김태호 1,030  
김태훈 7,320 박세은 16,590 성민철 2,230 심한진  
2,680 우승원 2,570 원한진 10,700 유구미 7,700  
유정현 3,700 이나경 18,590 이준규 14,620 장태훈  
4,160 전훈 1,550 최희원 3,350 홍솔빈 3,970) 1-6  
반 (강민주 8,560 고경은 1,140 김민재 2,080 김수  
경 8,000 김예민 11,120 김우승 3,720 김은비 3,320  
김정우 8,340 김현민 3,490 김형진 1,000 김혜빈  
3,440 남명준 8,450 노재우 2,900 박경은 7,440 박

재준 12,040 송성현 2,610 신예림 15,000 오유경 3,550 유윤진 12,170 윤보경 9,400 윤성민 3,210 윤시현 12,170 이상민 3,630 이상민 7,610 이상민 16,300 이상민 14,510 이지연 6,900 장혁재 3,000 조훈민 6,590 한채원 5,380 황재물 3,200 1-7반 (권보미 2,610 김다가 1,310 김민석 3,540 김보미 3,350 김아름 7,340 김태우 14,450 박승민 9,190 배성호 790 송영준 6,100 신현주 11,000 안상빈 1,000 이민지 8,170 이상용 18,190 이소민 2,870 이시용 4,260 이종호 2,420 이지호 16,100 이찬서 13,000 최은아 7,300 허삼현 15,620) 2-1반 (강다훈 4,770 김도현 2,410 김동훈 2,000 김승현 1,000 김태윤 1,580 박하늘 1,010 서민애 3,160 선재은 8,330 유수빈 1,210 이나연 9,530 이동건 5,350 이동진 5,210 이동건 4,950 이민경 3,850 이승재 850 이해정 6,110 장준엽 5,160 정민혁 3,320 조현지 4,020 최인준 2,510 최지예 8,230 최희수 4,380) 2-2반 (35명일동 10,500 권세희 1,000 권혁민 6,800 기교은 2,840 김연우 13,830 김재준 1,000 박수빈 11,830 박진성 1,000 박현정 1,070 방소희 10,000 방소희 6,110 백성경 1,120 변우식 10,660 설자수 3,260 송채림 6,850 안상진 2,510 윤동준 3,400 이연경 10,030 이찬우 17,030 조민수 5,000 최현지 1,000 한준희 3,280) 2-3반 (강민지 4,470 고하준 2,000 김예원 3,690 박성진 500 박세희 7,010 박시은 1,870 백기연 3,280 양희선 1,300 윤준혁 1,000 이가린 3,710 이예현 1,370 이지희 3,410 이찬희 5,110 임효연 10,380 조민성 2,650 주유신 2,880 최호준 5,790 한희성 19,960) 2-4반 (곽주연 8,910 김동화 2,650 김민지 3,050 김유민 1,000 김은비 350 김하늘 2,000 김형민 1,290 박미경 1,200 배준희 500 박강연희 3,010 송세연 400 안희선 1,000 원규호 440 유재훈 1,200 이동준선생님 20,000 이서연 5,000 이수환 2,000 이이영 2,660 아우혁 250 이재영 1,920 이재혁 1,200 임동근 1,000 임예원 4,100 장성민 1,100 조민서 1,000 최세아 22,350 최유진 2,510 한희성 1,000 현병연 2,100) 2-5반 (강산민 14,600 고태현 21,650 공민수 6,210 권순옥 3,760 김형준 5,860 민준식 2,610 박관진 16,050 서유진 3,930 안세린 3,160 양원식 2,150 오종현 2,210 오채린 1,100 오채린 1,430 유용현 2,000 유정우 4,920 윤경현 2,000 윤소이 3,740 윤채영 2,150 이시연 3,260 이원희 410 이재우 5,000 한연수 16,750) 2-6반 (권은하 2,220 김민재 6,650 김수진 5,450 김우태 4,310 노유정 7,820 박주희 11,650 송은빈 1,290 안현민 8,620 오민석 8,000 유가영 3,240 이세현 5,010 이우찬 5,860 이재우 5,070 정유빈 2,060 최기찬 4,860) 2-7반 (강성민 5,190 강준영 14,000 김민서 9,680 김세민 1,560 김승원 2,150 박민하 690 박삼영 3,830 박준서

16,000 박준서 6,980 박채민 8,280 박현빈 2,000 방민채 4,970 송정민 9,420 신글로리아 11,700 심하보 27,620 이다솔 5,210 전주형 23,500 정다빈 3,440) 2-8반 (곽규민 2,150 권나현 6,090 김이슬 980 나호수 8,850 서지현 5,660 안태현 8,680 양윤성 5,030 이예진 5,340 전용관 10,440 한규민 2,080) 김민서 2,410 강명률선생님 1,060 강승민 4,670 광동중법당 32,000 교장선생님 30,960 무명 5,420 무명 4,500 무명 10,000 무명 1,350 윤은숙선생님 9,510 최해림 6,530) 이화순 27,670

**남산**

남산법당 80,300 남산법당 40,280

**내서**

공남이 37,610 공남이 21,400 공남이 34,400 김애자 14,630 김명숙 21,800 김세 5,910 말산참기름 9,230 무명 6,300 무명 14,030 박경자 36,680 박다솔 23,880 박문자 21,800 박연옥 12,410 박영복 21,800 박영숙 27,010 서귀남 6,180 서귀남 7,250 서귀남 21,220 안석봉 22,820 윤경애 19,000 이계성 3,360 장남 8,940 정복기 15,390 정복기 38,550 조두남 21,800 최숙자 20,990

**노원**

노원법당 197,330 노원법당 121,680 노원법당 146,460 노원법당 51,890 무명 30,090 무명 38,080 무명 13,930 무명 32,080 무명 23,350 무명 51,870

**당진**

당진법당 14,510

**대구**

공수진2개 54,910 김호권 36,330 데레사소비센타 29,010 통구e포인트마트 16,800 무명 22,400 무명 52,500 무명 31,490 무명 15,760 무명 54,920 박강민 27,510 박은진 50,650 윤정희 21,700 윤진옥 68,220 이영수 31,390 이지훈 25,500 임금실 43,900 정용수5개 151,380 최진연 67,630

**대연**

대연법당 246,430 대연법당 122,980

**대전**

강희규 7,740 권연희 30,650 권소윤 31,110 김민아 13,160 김옥연 147,400 김채원 20,100 김기일 29,300 김동희 10,140 김민 19,650 김민 5,530 김순봉 15,200 김영범 26,950 김옥연 74,110 김

은경 25,840 김지현 29,280 김채원 20,750 김청자 25,000 김주옥 21,980 김현성(불불) 29,430 김효정 20,130 도태숙 12,940 무명3개 150,880 무명 6개 74,110 박영자 23,220 박영자 16,330 박용수 4,400 박종순 22,350 박현주 10,040 석정호 17,940 송미경 29,930 신선숙 21,120 안유옥 53,900 안유옥 60,280 양국승 24,570 오연심 12,010 유명훈 1,540 유미숙 24,020 유지훈 2,850 유향숙 6,650 윤영입 25,300 이기선 14,620 이기자 19,350 이미경 8,810 이신근 30,160 이영희 17,150 이옥선 35,760 이하은 10,850 이해경 29,350 이호준 54,180 임란희 19,050 임명자 23,930 임선우 21,580 장희문 37,030 정영희 20,910 정태형 7,390 정미자 22,380 정영희 13,880 정종옥 24,700 진상목 16,230 채희숙 26,500 최서영(꽃피는학교) 25,600 한순규 6,310 홍성관 36,920 홍성관 35,930

**덕양**

덕양법당 56,510

**도봉**

김부경 20,910 김점숙 17,010 박동숙 31,100 신수희 30,040 안재민 34,390 양길동 10,700 이선주 36,250 이완희 27,900 이한숙 17,700 황영옥 43,070 황인희 7,500

**동래**

고상현 21,960 김미정 46,010 김선주 53,300 김종만 144,420 김행란 40,500 류숙희 51,530 무명 25,330 무명 13,680 박미영 16,640 박상우 15,570 박성호 55,300 박재찬 35,020 서진숙 16,540 신혜숙 31,710 윤순도 24,450 이경녀 24,320 이경임 27,870 이나금 131,880 이삼덕 17,590 이종옥 17,100 이해숙 27,180 이향수 46,100

**동작**

부슬비 34,890

**마산**

김삼선 103,640 마산법당 41,490 무명 20,820 정경희 22,630 정현주 44,350 차보민 36,090 청동엔제리너스 15,500 한일3차APT 32,400

**마포**

마포법당 74,000

**목포**

목포법당 299,570

**문경**

김효원38,670 권순희 27,450 이재형 27,290 장미정 33,040

**방어**

강태석 5,490 백수빈 18,790 이경희 21,610 이현자 64,240 임승표 26,020

**부사**

강미정 13,650 무명 10,780 무명 70,560 박예진 57,500 박찬영 41,900 오민경 26,830 하재남 47,830 한아름마트 74,400

**부천**

감남순 37,740 김옥림29,200 박정원 23,150 유정이 25,870 이다솜 20,370

**부평**

김성욱 39,840 무명 19,730 박상준 19,770 송순애, 유효숙,윤귀현,이형우의 138,380 조금이 14,740 최미옥 26,990

**분당**

분당법당 60,320

**사천**

사천법당 19,230

**사하**

김수빈 16,230 김영임5,930 김지현 28,420 김태주 16,390 김효영 17,590 무명 20,570 무명 18,010 무명 21,000 무명 27,850 무명 36,300 박용석 30,550 박정은 13,070 배옥자17,480 백신아 11,740 사하법당 15,120 시소림 17,990 시영길 10,740 시용철 15,180 시준호 16,340 신은정 25,020 이말필 64,330 이실 22,430 이실 35,520 정무욱 7,060 최윤후16,210 최윤후 28,510 최윤후 7,560 하경수 30,450 하경수 29,160 하경수 20,970 황옥선 29,420

**서대문**

서대문법당 17,280 이승진 22,770 최윤정 30,600

**서면**

무명11개 541,530 서면법당 394,930

**서천**

서천법회 27,600 서천법회 87,370

**서초**

강숙임 3,330 강종열 32,750 고은설 27,150 권은정 21,940 김내경 7,800 김두선 26,000 김미애 28,290 김순태 44,580 김영숙 33,950 김영숙 26,770 김정옥 23,870 남숙자 10,950 무명15개 367,720 무명16개 276,080 무명 4,060 무명3개 77,860 문희수 25,220 박미연 22,300 박성호 17,110 방현주 30,000 별 19,840 성승현 30,700 송준영 21,950 심우엽 32,630 안범준 21,190 양승혜 23,290 유지영 26,500 유혜지 14,400 이남성 27,400 이영숙 54,320 이영숙 84,790 이은실 10,150 이지현 12,590 정기현 28,800 정성채 28,800 최병호신경정신과 37,950 최병호신경정신과 33,730 최영자,이해영,이하늘,이가람 388,600 최혜숙 33,280 황보출 23,900

**서현**

서현법당 152,460

**성동**

성동법당 202,370

**성서**

성서법당 108,600 성서법당 85,060

**세종**

세종법당 1,920 세종법당 28,020 세종법당 43,520

**송도**

송도법당 389,580

**송파**

이경희34,100 이인숙 40,400 최은희 15,500

**송현**

송현법당 140,880 송현법당 53,920

**수원**

무명 65,070 인동민 30,230

**안산**

안산법당 46,040 안산법당 35,510

**안양**

무명 18,000 박옥화 27,030 서성현 38,120 이광민 18,350 이선복 15,100 주상철 30,360 최현숙 35,200

**양덕**

양덕법당 165,120

**양산**

김상희 18,530 김용임 25,330 김진은 17,780 무명 23,130 박남선 22,610 박남선 31,910 송주영 27,600 이순희 28,340

**양평**

양평법당 73,000

**여수**

여수법당 52,750

**영주**

신광섭 86,870 심순덕 26,000 정성희 27,560

**영천**

영천법당 173,850

**영통**

영통법당 150,520 영통법당 52,910

**울산**

강해경 25,240 김광희 22,170 김병권 20,000 김영애 23,230 김영주 68,410 김영현 20,590 김일명 29,140 김중락 19,290 김혜진 37,790 무명 20,260 무명 119,550 무명 40,000 무명 18,900 무명 27,060 무명 31,060 무명 19,550 무명 50,340 무명 23,090 무명 27,010 무명 21,690 무명 29,650 무명 26,800 박지현 11,470 박지현 6,610 박행숙 28,310 심숙희 40,000 심숙희 40,000 심숙희 40,000 양승돈 31,550 유영화 29,960 유은숙 18,150 윤정수 20,610 윤정인 17,320 이경미 4,430 이심교 89,180 이영옥 15,700 이영옥 22,380 이주형 52,180 임순화 25,730 정지현 31,600 한양스토아 74,070 한원희 20,860 황미애 10,520 황혜주 29,040

**원주**

박성희 146,420 신영식 38,840 이상자 33,780 이윤수 61,480 한만자 29,000 허문길 30,750 홍성호 31,900

**은평**

은평법당 174,440 은평법당 189,000

**의정부**

의정부법당 49,560



**인천**

무명 17,230 무명 27,230 인천법당 249,320

**일산**

일산법당 199,710 일산법당 109,700

**전주**

권민우 53,930 김선화 37,580 전주법당 76,030 전주법당 50,370 홍선용 39,450

**정관**

정관법당 89,670

**정읍**

정읍법당 17,940

**제주**

제주법당 20,260 제주법당 52,540 제주법당 32,200 제주법당 112,520

**제천**

제천법당 141,850 제천법당 150,700

**진주**

진주법당 51,010 진주법당 756,390

**진해**

진해법당 70,740

**창원**

창원법당 217,770 창원법당 167,470 창원법당 212,240

**청주**

청주법당 465,480 청주법당 267,080

**춘천**

춘천법당 65,580 춘천법당 107,170

**태백**

무명 61,000

**태전**

권민정 48,630 권순탁 48,650 김지덕 17,460 박경숙 23,130 손익련 20,700

**평택**

무명 21,990 무명 21,570 무명 25,050

**해운대**

해운대법당 368,840

**화명**

김복화 47,600 박현주 26,410 백기덕 27,530 백성기 33,520 윤미리 34,170 이나금 64,770 최윤숙 19,730 최장숙 28,140

**화봉**

화봉법당 46,300 화봉법당 356,890

**흥덕**

흥덕법당 326,050

**기타**

가은속 6,140 김경범 61,630 김미숙 22,750 김정연 70,760 무명(입재식) 31,180 무명(입재식) 18,090 무명(입재식) 10,000 박지예 81,130 산들바람공부방 32,730 송촌보건진료소 69,050 신현미 37,270 우정석 66,070 유병일울산남구청 41,350 유효숙 31,290 이상숙 53,500 이서은 36,260 이순옥 35,770 이울 39,960 이울 1,040 정연우 18,120 정우석 18,410 정정희 44,440 정토포법당 186,500 중앙초1-4 41,400 하은환 36,080 한승명실래 6,950

**거리 모금 현황**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JTS모금 19,700 JTS모금 254,800 강동 199,670 강릉 919,120 강서 144,010 강화 635,020 거제 1,407,610 경기광주 433,030 경산 798,890 경주 1,816,530 계룡 373,610 고성 549,190 관악 413,740 광명 1,393,640 광주과학고한구내 144,100 광주 1,885,210 구로 369,700 구리 906,020 구미 985,200 군산 154,000 권선 497,100 기장 333,400 기흥 833,380 길벚 8,675,310 김천 590,110 김포 510,040 김해 2,366,030 남산 1,427,410 남양주 658,150 남원 68,400 내서 895,290 노원 1,099,310 당진 241,500 대구 5,529,410 대연 755,330 대전 3,207,300 덕산 1,063,540 덕양 421,920 도봉 524,690 동래 2,715,910 동작 210,650 마산 3,228,460 마포 208,700 목포 680,400 문경 703,210 밀양 233,300 빽어 741,110 부사 273,930 부천 1,185,880 부평 544,840 분당 1,365,370 사천 780,280 사하 1,674,540 상주 284,030 서대문 104,450 서면 1,281,990 서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JTS 후원계좌 안내

▶ **문의처** 후원팀 계좌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서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 **CMS 출금이체 약관** (자세한 약관은 [www.jts.or.kr/donation/cms.html](http://www.jts.or.kr/donation/cms.html) 을 참고하세요.)  
본인은 (사)한국제이티에스에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지정출금계좌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단, 납출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한국제이티에스와 협의하여 출금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CMS 출금이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 전자금융상자 및 (사)한국제이티에스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후원금의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목적: 회원관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금 납부 | 수납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이용기간 |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고유 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등 제3차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  
제공대상: (사)금융결제원 | 제공목적: CMS 출금이체 승인 및 정산 | 제공정보: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계좌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까지, 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제공대상: (주)유니스트트레이 | 제공목적: 회원관리, 후원금 결제, 온라인 회원 서비스, 기부금영수증 발행 | 제공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제공대상: 국제성 | 제공목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 제공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관기간: 5년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차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출금이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등 제3차 업무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 대두리 부분 전체를 풀칠하고 반으로 접어 주세요.

##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1. **후원사업 및 금액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사원(금액)에 V 표시를 해주세요.

인도 및 제3세계 돕기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원)
필리핀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원)
북한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원)
JTS 전체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원)

2. **후원회원 인적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든 항목 필수)

성명 (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핸드폰 또는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
주소 ( <input type="checkbox"/> JTS의 소식지 책자를 우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	

3. **CMS 후원금 인출계좌 후원금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든 항목 필수)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년    월    일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인가, 예금주의 출금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    )	
은행명	후원금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매일	
후원금 지정출금 계좌번호		

■ **CMS 출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종 후원금을 인출계좌에서 JTS의 후원계좌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 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 출금일인 10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17일과 25일에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 **첨삭**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대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